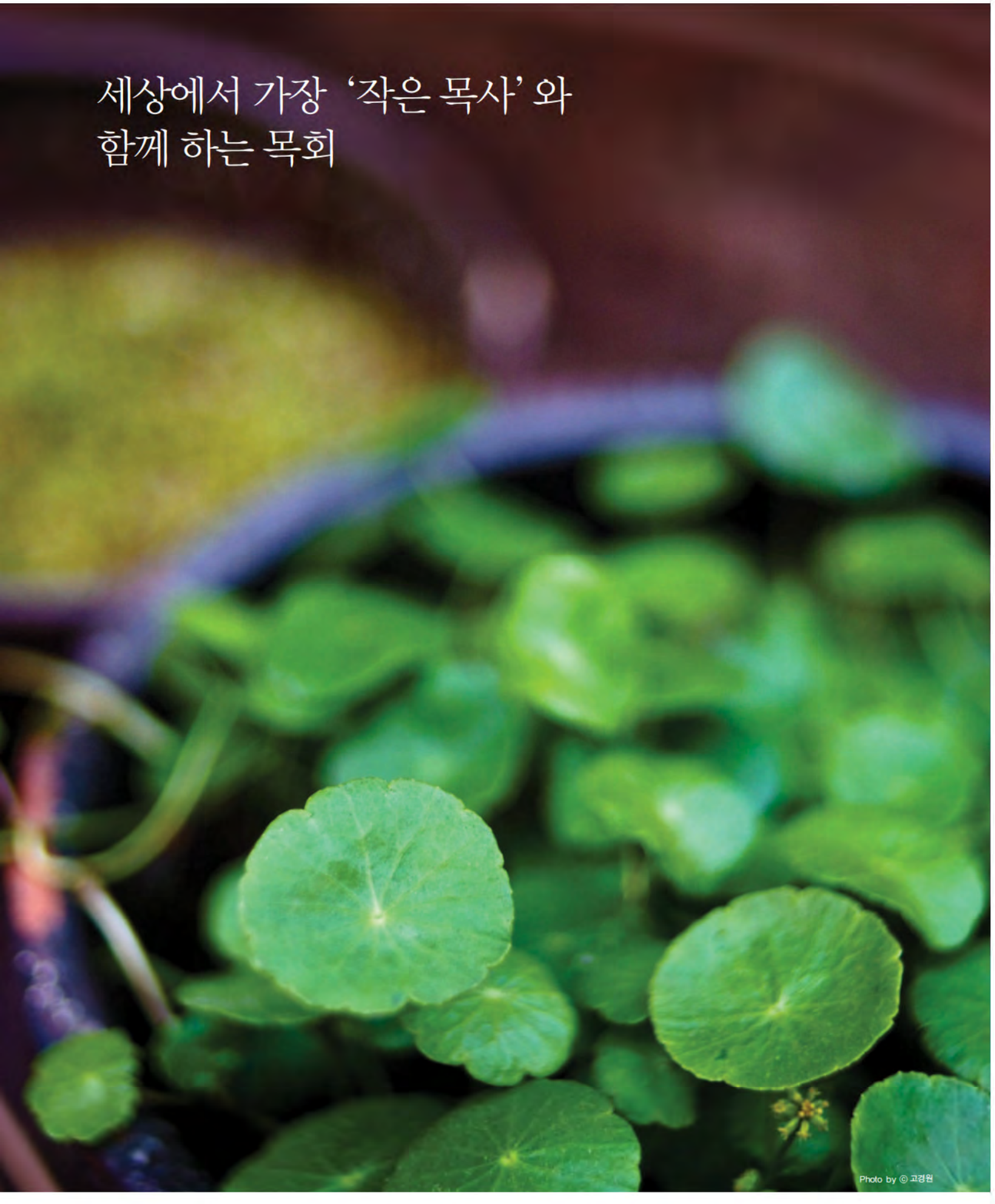

세상에서 가장 '작은 목사'와 함께 하는 목회

김광석 목사

한양대학교와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후 총신대 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학을 전공했다.
성도교회와 승동교회 교육목사를 거쳐
현재 사랑의교회에서 고3부와
청소년 주일학교 디렉터로 섬기고 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은 피곤하다. '입시 지옥'이란 말이 있듯이 엄청난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 자신의 몸 하나를 제대로 챙기기에도 힘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런 삶의 짐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기꺼이 받아들일 뿐 아니라, 자신의 삶과 후배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전파하고 전달하고 있는 '작은 목사'들이 있다.

사랑의교회 청소년 주일학교에는 현재 40여 명의 학생 리더가 있다. 이들을 '작은 목사'라고 부르는 것은, 학생 리더들의 주된 사역이 '소그룹 목회'이기 때문이다. 목사가 목회를 하듯 학생 리더들이 작은 목사로서 후배들을 목회하고 있다.

학생 리더는 '소그룹'을 담당한 리더로서 1년 또는 6개월 동안 후배들을 맡아 교사와 동일한 사역을 감당한다. 주일예배 후에 진행되는 소그룹 시간에 공과를 가르치기도 하고, 일대일로 후배들은 만나 함께 기도하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기도모임을 이끌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도 하고 있다.

〈디사이플〉은 최근 『좌충우돌 청소년 제자훈련 이야기』를 출간해 사랑의교회 청소년 제자훈련의 속 이야기를 공개한 김광석 목사를 찾았다.

상식의 통념을 뒤엎다

조금 과장하면 동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사실 아이들에게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도전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그렇다.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학업과 진로 문제이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 리더 훈련을 시키고, 학생 리더로 서임하여 후배들을 섬기게 한다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김 목사는 과감히 일반적인 상식의 통념을 뒤엎었다. 이렇게 상식의 세계를 뒤집을 때는 위험도 따르지만 그 반대급부로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 청소년들에게 놓인 상황과 환경이 절박할수록 그것을 완화시키려고 애쓰는 것보다,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섬김'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병기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힘들수록 섬겨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강남의 8학군 지역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입시 전쟁 속에서 신음하며 쓰러지는 것보다, 한 영혼을 향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학업의 짐을 지고 있는 시기이기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학업과 관련된 부분이다. 학생들이 제자훈련을 받으면 학업에 할애 하는 시간이 적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성적이 떨어진다는 공식을 대입하면 안 된다. 학업 성적은 시간의 양과 비례하는 것이 아닌 시간의 질과 비례한다. 한 시간을 하더라도 집중력 있게 시간을 사용한다면 성적은 떨어지지 않는다.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오히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더욱 집중력 있게 공부하게 된다. 상식적으로 제자훈련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는 학업시간 부족으로 세칭 일류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없어야 하지만 결과는 그 반대이다.

상식의 세계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기적 같은 결과도 있다. 도저히 당시 성적으로는 서울 아닌 지방대학에도 들어갈 수 없는 학생 리더 출신의 고3 여학생이 있었다. 그 어머니가 하루는 봉사활동을 많이 한 학생 중에서 선발하는 목회자 추천전형이라는 서울 소재 대학의 수시원서를 가지고 왔다. 학생 리더로 활동한 것도 일종의 봉사였기 때문에 추천서를 작성했다. 물론 성적이 낮아서 부모님도 그 학생도 김 목사도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날 저녁, 그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다. 그

사랑의교회 청소년 주일학교에는 현재 40여 명의 학생 리더가 있다.
이들을 '작은 목사'라고 부르는 것은,
학생 리더들의 주된 사역이 '소그룹 목회'이기 때문이다.
목사가 목회를 하듯 학생 리더들이 작은 목사로서 후배들을 목회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기도모임을 이끌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도 하고 있다.

여학생은 수학능력시험을 치르지 않고 대학에 입학한 것이다.

청소년 시기에는 정신적인 영역에서 겪는 어려움도 많다. 그런데 제자훈련은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치유도 동반한다.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으로 우울증과 대인관계 기피증을 겪고 있던 학생이 있었다. 그 부모는 아이가 고등학교만이라도 제대로 졸업하는 것이 소원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아이에게 제자훈련을 받게 했다. 제자훈련을 통해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고민이었다. 그 결과 정신적인 상처는 아물게 되었고, 정상적인 학교생활도 가능해졌다.

이처럼 제자훈련을 통해 그리고 섬김을 통해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상식의 세계 속에서는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지금 제자훈련을 통해 깨어난 청소년들은 세상의 또래들과는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숙명이 되어버린 우연

김 목사가 맨 처음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것이었다. 보통의 경우처럼 당회에서 고등부 담당 교역자로 임명을 받아 시작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신학생들은 교육전도사로 청소년 부서를 섬기는 것을 이후 부목사가 되고 담임목사가 되기 전에 거쳐 가는 과정으로 여긴다. 자연히 청소년 사역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마스터플랜도 없고 그에 따른 사역 전략이나 구체적 방법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자연히 사역이 좌충우돌하기 마련이다.

청소년 초보 사역자 시절, 김 목사는 학생들의 필요를 찾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교회는 물론, 그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 찾아갔다. 그런데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지만 학년이 바뀌는 연말이 되면 뭔가 채워지기 않는 허전함이 있었다.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오는 것도 아니었고, 진급해서 부서를 떠나는 학생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도 아니었다. 뭔가 열심히 해왔지만 남는 것이 없다는 허전함이었다.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사역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을 공부하기도 했지만 학업 속에서도 확실한 답을 찾지는 못했다. 실제로, 그 허전함의 정체조차 파악이 안 되니 더 답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2000년 12월 사랑의교회 청소년 사역자로 부임하게 되었다. 처음 만난 청소년들의 모습은 무반응, 무감각, 무표정이었다. 김 목사는 이것을 '3무(無)'로 정의한다. 3무의 학생들은 성품은 온순하고 착한데, 신앙생활이 수동적인 경우가 많았다. 자발성이 없는, 부모님에 의한 피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한 아이들을 보면서 분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3무에서 '3유(有)'로 만들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며 열정적으로 뛰어다녔다.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일주일마다 10여 곳이 넘는 학교를 돌아다녔다. 청주에서 서울까지 출석하는 단 한 명의 학생을 위해 청주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분주함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사역의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이즈음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CAL세미나)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사랑의교회에 부임한 교역자라면 꼭 수료해야 하는 의무였다.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사역을 멈추고 세미나에 참석해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희망과 실패를 함께 경험하다

그러나 그는 세미나를 통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혁명적인 인식의 변화를 경험했다. 세미나를 통해 받은 영적 충격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 충격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그때까지 알고 있었던 교회의 본질은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 이렇게 세 가지였다. 이렇게 세 가지만 알고 있는 김 목사에게 옥한흠 목사는 교회의 제4의 속성으로서 사도성을 이야기했다.

교회는 사도들의 증거와 사역 위에 세워졌다. 그러기에 교회가 사도적이라는 것은 사도성을 본질로 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사도성이 없으면 교회의 다른 세 가지 본질들마저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사도의 교훈과 사역은 성직자나 평신도를 가릴 것 없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성도가 계승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 사역에도 적용된다.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성을 계승해 그들이 청소년들을 붙들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에 가장 근접한 사역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충격은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하는 사역의 적용이 바로 제자훈련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회 사역은 대체로 예배와 심방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성도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교훈과 사역을 계승해 삶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나 심방만으로는 안 된다. 사도성을 계승해 나가고 교회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부음이 넘치는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을 통해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새롭게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청소년 사역을 해오면서 답답했던 갈증이 일순간에 풀리는 느낌이 들면서, 사역의 방향을 교사 훈련에 맞추게 되었다. 선생님들을 깨워야 학생들도 깨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실제로 교사들 가운데 타성에 젖어 있거나 헌신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많으며, 삶에서 본이 안 되는 분들이 있었다. 그러기에 교사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학생들을 변화로 이끄는 첩경이라고 생각했다.

'변화되지 않는 교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사 모임 때마다 교사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훈련을 통해 선생님들의 삶이 먼저 바뀌어야 학생들도 선생님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훈련받은 교사가 수많은 청소년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하며 선생님들이 호응해 주기를 기대했다. 그 이후 대대적인 교사 제자훈련 모집 광고를 시작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받은 교사는 훈련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선생님들을 훈련시키는 교사가 되어야 하며, 의무적으로 3년 동안은 교사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도 명시했다.

제자훈련 커리큘럼은 상반기에는 주로 교사로서 신앙생활 하는 데 기초가 되는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하반기에는 학생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실제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커리큘럼을 작성했다. 물론, 교사들에게는 많이 버겁고 어려운 시간이 되겠지만 그 이후 거듭난 사역자로 변화되어 있는 자신을 그려보며 도전해 보자고 교사들에게 권면했다. 그 결과 여러 명의 교사들이 지원을 했다.

2002년 3월 첫째 주 화요일을 잊을 수가 없다. 지원한 교사들이 한두 명씩 사정이 생겨 못하게 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1명의 교사만이 약속한 시간에 왔다. 혼자 남은 교사도 놀라고, 김 목사도 놀랐다. 교사 제자훈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1명의 선생님이라도 붙들고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이 떠올랐다. 200여 명에 가까운 선생님 중에서 1명의 교사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주셨다고 믿었다. 하나님의 일은 많은 수가 중요하지 않고, 단 1명이라도 헌신된 사람이 있으면 된다는 믿음의 각오도 생겼다.

그래서 결국 한 명의 선생님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일대일 제자훈련을 시작했다.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교역자실에서 일대일로 훈련을 진행했다. 1명의 교사의 헌신으로 인해 또 다른 많은 선생님들도 훈련을 받고, 헌신하게 되어 청소년들이 감동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 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귀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열심을 다해 훈련을 진행해 나갔다. 일대일로 훈련을 받는 교사도 하루가 다르게 그 삶의 모습이

달라져갔다. 직장생활의 여러 스트레스로부터 훈련은 큰 힘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하루가, 일주일이 그리고 한 달이 지나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상반기 종강을 맞이하게 되었다. 앞으로 훈련 받은 1명의 교사로 인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종강 모임을 가졌다.

하지만 그 교사는 여름이 끝날 즈음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김 목사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이었다. 그리고 훈련 받은 그 교사는 가을이 오기 전 훌쩍 유학의 길에 올랐다. 앞으로의 계획도 다시 세워야 했고, 교사 제자훈련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실패의 쓴 잔을 '광인론'이 삼켜 버리다

이즈음 김 목사는 다시 한 번 CAL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다. 사랑의교회 교역자들은 CAL세미나가 시작되는 첫 날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 앞에서 특송을 한다. 특송을 하면서 묘한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이 세미나를 통해 한 사람 철학에 대한 비전을 가졌고, 사역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잡았다고 감사하며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 없이 서 있는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러웠다. 이러한 자신을 다시 한 번 추스르는 기회가 필요했다. 그래서 특송 후에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강의를 다시 들었다.

첫날 저녁 강의는 옥한흠 목사의 '광인론'이었다. 그 강의는 김 목사에게 결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강의가 되었다. 다음은 강의 중에 옥한흠 목사가 예로 들었던 한 토막의 일화이다. 옥한흠 목사가 서울신학대학원에서 제자훈련 강의를 하고 마칠 무렵 어느 목회자가 질문을 던졌다.

"서울 강남처럼 삶의 시간적,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는 제자훈련이 가능하겠지만,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생존의 문제를 결코 해결 할 수 없는 인천의 달동네에 있는 교회에서도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 옥한흠 목사는 "만일, 인천의 그 달동네에서 옥 목사가 목회를 한다면 과연 제자훈련을 했을까요?"라고 역으로 질문을 했다. 질문한 목회자는 "옥 목사님이라면 하셨겠지요"라고 빙그레 웃으면서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다.

이 짧은 내용의 일화가 고정관념의 틀 안에 매여 있던 김 목사의 생각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화는 책에서도 본적이 있고 CAL세미나에서도 들은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강한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동일한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들릴 수 있었는지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눈과 귀를 번쩍 뜨게 해주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김 목사의 고백이다.

이 날의 충격이 그동안 그렇게 찾고자 했던 청소년 사역의 본질을 붙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생존의 문제로 씨름하는 달동네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자훈련을 할 수 있다면, 매일같이 학업에 지치고 입시로 스트레스를 받고 늘 시간에 쫓겨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추스르기도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제자훈련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 동안 청소년들을 가르침의 대상, 섬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워왔다. 특히, 사랑의교회 청소년들은 소위 강남 8학군이라 불리는 명문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절반을 훨씬 넘는다. 그렇기에 평일은 물론, 주일에도 공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학원, 과외에 매여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런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제자훈련을 하자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무리였고, 학생들 또한 제자훈련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었다. 그래서 청소년 제자훈련이 있기는 해도, 하나의 유명무실한 프로그램으로서 진행되었을 뿐이다. 훈련 그 이후에 학생을 동역자로 세우는 제자훈련이 아니었다.

그저 사랑의교회에 속한 고등부이기 때문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 제자훈련을 진행한 것뿐이었다. 온전한 제자훈련이 아닌 반쪽짜리에 불과한 제자훈련을 진행했던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청소년 부서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학생들의 교회 활동 참여는 대학 입학 이후로 미루는 것이 통념이었고, 주일예배만이라도 잘 나와 주기를 바라는 것이 대부분의 선생님과 교역자의 생각이었다.

그들을 위한 신앙교육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하는 교육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은 주일예배와 공과공부 그리고 방학 중에 진행되는 수련회가 전부였다.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교회의 본질인 사도성이 학생들에게 계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청소년들 역시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입시라는 거대한 흐름에만 가두어 두고,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는 신앙인으로 만드는 훈련에서는 예외를 둔 것이었다. 김 목사는 광인론을 통해 제자훈련의 진정한 대상이 청소년 그들 자신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광인(狂人)'이 되어 보자는 굳은 결심을 했다. 학생들을 가르침의 대상에서 동역의 대상으로 삼아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훈련을 시키며, 그들에게 한 영혼에 대한 불타는 비전을 심어주고, 한 영혼한 영혼을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에 동참시킬 수 있다면 그야말로 청소년 사역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도 가지게 되었다.

청소년을 깨워 동역자로 삼는 사역을 펼칠 수 있다면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것이라 여겼다.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해나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가능성을 많은 청소년 사역자에게 보여 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

강의가 끝났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다. 수양관 본당에 걸린 "평신도를 깨운다"는 대형현수막의 글자가 눈물에 가려져 "청소년을 깨운다"는 글자로 바뀌어 보였다.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올렸다.

청소년 제자훈련을 시작하다

교사 제자훈련은 모집부터 요란스러웠는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제자훈련은 차분하고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 훈련생을 모집하기 전에 먼저 제자반을 담당할 교사를 모았다. 교역자가 가진 비전을 거리낌 없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마음과 뜻을 서로 모을 수 있는 교사를 직접 연락해서 모집했다.

제자훈련의 철학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첫 청소년 제자훈련에는 교역자와 마음이 맞지 않는 교사는 가급적으로 피해야 된다. 교사들과 가장 먼저 한 것은 비전을 나누는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고등부 제자훈련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젊은 남자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반드시 훈련을 받는다. 군사 훈련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훈련 이후 각 부대에 배치를 받아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군으로서의 그 몫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신체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마치고 제대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시했던 청소년 제자훈련은 훈련을 마치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 이후가 없었다. 제자훈련이 훈련으로 진정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 이후 훈련 받은 학생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장(場)을 열어 주어야 한다. 그 장을 열어주지 않으면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훈련을 2개의 과정으로 나누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제자훈련을 하고, 제자훈련을 수료한 학생들을 또 한 번 선발하여 겨울방학 중에 리더훈련을 하기로 했다. 제자훈련은 학생들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자신의 성품이 예수님처럼 온전해지고자 치열하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리더훈련을 통해서는 섬기는 리더십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해주어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섬기는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후 제자훈련의 교재와 훈련 과정을 제자훈련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제자훈련의 목적은 기독학생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도록 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소명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 목적에 맞게 옥한흠 목사가 펴낸 제자훈련 교재를 중심으로 작업을 했다. 교재가 완성되자 그 다음에는 각 과에 맞는 과제물과 청소년 대상의 제자훈련인 것을 감안해서 활동

청소년 제자훈련은 청소년 제자훈련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어른들은 어른들만의
세계가 있듯이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만의 세계가
있다. 그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청소년들 자신이다.
신앙적으로 훈련받고 성숙한 청소년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다.
청소년 사역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들어가기 쉽지 않은 어른들이
청소년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Activity)도 새로 넣었다. 제자반 1박2일 수련회도 실시하기로 했다.

과제물은 교재예습, 성경암송, 큐티, 독서물, 생활과제물, 성경읽기, 설교요약, 기도 등으로 정했다. 그리고 훈련기간도 바꾸었다. 기존에는 5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진행했었다. 그러다 보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에는 훈련을 쉬게 되어 훈련의 흐름이 끊어지게 되었고, 무엇보다 학기 중에는 학업과의 병행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방학부터 시작해서 9월초까지 집중해서 10주 동안 하기로 했다.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2~5시까지 3시간 동안 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교사 1인당 훈련생이 5명이 넘지 않도록 배정했다. 매주 3시간 동안 5명의 학생들이 교사와 정기적으로 만나서 훈련에 집중한다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

욕심을 내려놓고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청소년 제자훈련은 교역자가 먼저 학생수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단 한 명이라도 진짜 한 영혼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학생을 선발하고, 그 훈련생을 위해 사랑의 진액을 쏟아 놓아야 한다. 제자훈련은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는 사자 성어를 결코 적용할 수 없다. 이 함정은 너무 매력적이어서 여기에 걸려들면 헤어 나오기 힘들다.

청소년 제자훈련은 청소년 제자훈련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어른들은 어른들만의 세계가 있듯이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만의 세계가 있다. 그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청소년들 자신이다. 신앙적으로 훈련받고 성숙한 청소년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다. 청소년 사역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들어가기 쉽지 않은 어른들이 청소년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제자훈련을 받는 학생들의 인원이 20명 이내라면 교역자가 직접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 학생들을 10명 내외로 편성하여 2개 또는 3개 반으로 나누어 교역자가 진행하는 것이다. 그들은 결국 교역자와 동역을 하는 동역자로 세워져야 하기에 제자훈련부터 교역자의 목회철학을 습득하게 하고, 훈련 기간 동안 교역자의 관심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훈련생이 20명 이상일 경우 교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교역자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어렵다. 사랑의교회 청소년부서는 제자훈련 지원자가 20명 이상이 되기에 주로 교사들이 제자훈련을 맡는다. 이럴 경우 제자반을 담당할 교사들과 몇 차례 사전 워크숍을 한다. 워크숍에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 제자훈련 철학에 대한 공유와 실제로 훈련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기를 알려주는 것이다.

제자훈련의 진행과 관련된 기본기는 두 가지이다.

첫째, 교사들이 제자훈련에 직접적으로 '참여' 하게 하고, '실습' 하도록 해주는 워크숍을 하는 것이다. '참여' 는 교사 스스로가 훈련생이 되어 직접 교재와 과제물을 미리 해가지고 와서 담당교역자에게 제자훈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제자훈련을 경험한 교사는 교역자가 진행하는 훈련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며, 좋은 것은 취하고 수정할 것은 보완하며 배울 수 있다.

제자훈련의 경험이 없는 교사는 백문(百聞)이 불여일행(不如一行)이라는 말대로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실습' 은 교사 몇 분을 지정해 제자훈련을 진행하도록 맡기는 것이다. 다른 교사들과 교역자가 훈련생이 되어 그 교사에게 제자훈련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직접 진행한 교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둘째, 청소년 제자훈련의 기본기는 훈련 시간뿐만 아니라 그 외의 시간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을 한 명 한 명씩 찾아가서 일대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 제자훈련 시간에 학생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그 안에 감격과 감동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 받는 학생들과 만나는 사역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제자훈련의 목적은 훈련생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도록 하여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신앙인으로 만드는 데 있는데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변화이다.

변화를 주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만남이다. 만날 때는 가급적이면 훈련생의 가정에서 만나는 것이 좋다. 부모님도 만나보고 학생의 가정 형편도 살펴보게 되면서 그 학생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정성껏 만나고 섬기고 보살피는 것 자체를 학생들이 배우게 된다. 아이들의 기억과 마음속에는 교사의 말보다는 교사의 행함이 더 많이 남는 법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제자훈련에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인터뷰에서 탈락하게 되면 십중팔구는 시험에 든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에 대한 각오와 결단이 보다 분명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지원하기 전에 양육학교 같은 과정을 만들어서 참석을 한 학생들만 지원 자격을 주거나 지원서에 독후감 과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지원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한다.

소극적인 학생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제자훈련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비전도 제시해주어야 한다.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다가,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까지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큰 의미이자 보람이라고 강조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훈련이 마치고 나서는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위해 사역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섬기며 생활할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로 신앙과 학업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한다.

제자훈련 기간 중에는 반드시 전도실습을 하게 한다. 그 이유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대한 순종의 도를 다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낯가림이 많은 내성적인 청소년들이 낯선 이들에게 먼저 접근하는 기회를 통해 낯가림이 없어지게 되어 외향성을 띠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자신감이다. 누구든지 먼저 다가가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자심감이 생긴다. 리더로서 꼭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가 전도실습을 통해 갖추어지게 된다.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되면 교역자는 정말 바빠진다. 훈련 사역을 중심에 놓으면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에 주일 설교 준비에 이전보다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 새벽 시간을 이용하든, 밤 시간을 이용하든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은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설교의 질이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교역자는 위임의 기술이 필요하다. 설교와 훈련 사역 이외의 것은 과감히 선생님들께 위임하도록 해야 한다.

마중물과 기대

『좌충우돌 청소년 제자훈련 이야기』는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다. 김 목사는 자신이 출간한 책은 마중물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펌프에서 샘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게 하기 위해 마중물이 사용되듯이, 김 목사는 청소년 제자훈련은 사랑의교회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앞으로 제2, 제3의 수많은 청소년 제자훈련 이야기가 한국 교회 청소년 부서마다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태어난 청소년들이 한국 교회를 만난 것이, 그리고 만난 그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일생에 최대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

개교회적으로 청소년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 사역을 하는 교역자들끼리 서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남, 서초 지역에 있는 청소년 사역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고 있다. 학교 기도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역자들이 연합한 것이다. 함께 모여 서로의 사역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고, 학교 기도모임도 함께 진행하는 등 청소년 사역의 지평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식의 틀을 깨고 자기의 한계에서 벗어나 목회의 본질에 집중하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세상이 주는 어려움이 크고 상황이 힘들어도 복음의 능력을 이기지는 못한다. 김 목사와 사랑의교회 청소년 주일학교가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는 상황과 지역에 한정된 특별한 무엇이 아니다. 김 목사의 말처럼 한국 교회 전체의 청소년을 위해 준비된 마중물이다. 한국 교회 곳곳에서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작은 목사들이 나타나길 기대한다.

〈김건주 목사〉

〈INTERVIEW 1〉

제자훈련,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 사랑의교회 고등부 리더 출신 윤지영 자매

윤지영 자매는 제자훈련을 받기 전에는 큐티와 기도 등 신앙생활의 ABC가 습관화 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습관을 들여야 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한 상태였다. 고등학교 1학년이던 그해 12월 선생님의 추천으로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큐티를 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친구들, 선생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통해 동역자의 의미를 깨닫기도 하고, 나눔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아정체성이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제자훈련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라고 말한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8학군인 대치동으로 이사해서 학교를 다닌 그녀는 학업 스트레스에 하루하루가 힘든 나날이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받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짐으로써 새 힘을 얻길 원했다.

그녀는 고등1, 2부와 고등3부의 두 제자훈련을 수료한 후, 한 학년 아래의 후배들을 양육하는 리더로 사역하면서 당시 다니던 경기여고에서 기도모임을 시작했다. 시작 후 일 년 동안 기도모임은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고, 100명 가까운 학생들이 모임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렇게 시작한 경기여고의 기도모임은 3년째가 되어간다.

고등1, 2부 때와 고등3부 때 양육 리더로서 섬기던 후배들 중에서는 그의 영향을 받아서, 제자훈련과 리더훈련을 받는 학생들이 생겼다. 그리고 대학을 진학한 이후에도 고3 후배들을 양육했는데, 지영 자매는 학부모님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가정에서의 생활과 신앙생활 일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진정한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다. 제자훈련은 이렇게 지영 자매를 작은 목사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녀는 제자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힘주어 말한다.

"부모님들의 반대로 인해 제자훈련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과 또 스스로 제자훈련을 시간낭비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헌금도 작은 액수부터 내어놓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시간 또한 어려서부터 내려놓지 못한다면, 나중에 더 힘들어 질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비하게 됐습니다."

〈INTERVIEW 2〉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무엘

"내성적이었던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곤 했습니다. 신앙도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설교도 제대로 듣지 않았죠."

박사무엘 형제는 고1 때 아무 동아리에나 들어가서 섬기기로 결심했다. 그때 가입했던 동아리가 바로 '신사도'(신입생을 사랑하는 도우미)이었다. '신사도'는 교회에 처음 나오는 친구들이 잘 정착하도록 돕는 사랑의교회 고등부 학생 동아리이다.

그러나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신사도'에서도 근 1년을 조용히 자리만 지켰다. 그러던 중 여름방학에 제자훈련 신청을 받는다는 광고를 접하고서 마음속으로 '바로 이거다!' 하는 탄성을 지르고 훈련을 신청했다. 그때의 훈련을 통해서 그는 내성적이던 성격까지 변하게 되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제자훈련은 사랑의교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었고, 친구를 만들어 가고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죠. 무엇보다 성격이 '내성적'에서 '외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얻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된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훈련을 통해 자기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깊이 나누며, 서로를 위해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같은 믿음을 나눈 지체들을 얻게 된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는 제자훈련을 수료한 후 리더훈련까지 수료하고 적만 두었던 '신사도'에서 적극적으로 사역하고, 고2 학생이 고1 학생의 교사로서 1년 동안 섬기는 학생리더로서도 활동했다. 그는 훈련과 마찬가지로 사역을 통해서도 얻은 것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사역동아리를 통해 좋은 친구들과 선후배를 알게 됐는데, 지금도 연락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요. 학생리더를 하면서는 사람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교사로 섬기시는 어른들의 심정도 이해하게 됐어요."

이렇게 그는 같은 처지의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로 변화했고, 타인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는 성숙한 한 사람의 리더로 변화되었다.

"제자훈련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즐기는 마음으로 하시면 어느 샌가 놀랍게 성화된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김영현 강도사〉